

## 부록 2 - 네 인물, 세 시대, 두 전환기<sup>1)</sup>

### 긴 안목으로 본 선교역사

오늘날 전세계의 대학생들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휘말려들고 있다. 그 이유 중의 강력한 하나는 공산주의가 역사에 대한 ‘긴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단지 그 필연적인 흐름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들은 일시적인 반전 현상들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역사의 흐름은 그들 편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음주의자들도 역사의 흐름과 닥쳐올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관한 린제이(Hal Lindsey)의 책들과 최근의 영화들에 대한 놀라운 반응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하는 식의 물음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 준다.

공산주의자들과 비교하면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역사에 대한 가장 긴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사실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기독교인들은 예언과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논의와 선교에 관한 논의 사이에 어떤 연결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성경을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미래를 위한 예언의 책으로 보고 있다. 한편 커(Bruce Ker)가 잘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성경은 철저히 선교적인 책이다. ... 모두들 일관되게 묶어 주는 주된 논지는 선교적 목적의 전개이며, 점진적 실천이다.”

그러면 나는 “주일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가?”라고 자문해 보았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나는 선교 이야기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복을 받고 땅 위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다고(창 12:1~3)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베드로는 성전에서 설교하던 날 이 구절을 인용하였다(행 3:25).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인용하였다(갈 3:8).

그러나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그 구절의 전반부만이 곧바로 성취될 수 있었으리라고 한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이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야만 했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서 그의 지상명령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말이다(나는 이것을 ‘동면적 위임이론[The Theory of the Hibernating Mandate]’이라 부른다).

좀 더 흥미로운 최근의 해석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그 축복을 나눌 책임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꼭 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 이

1) Ralph D. Winter, Perspective, pp.5-4-5-16에서 ‘근대선교의 전환기’ 그림을 수정하여 재인용하였습니다.

래의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던 민족들은 그런 책임도 아울러 지는 것이었다(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다른 나라들도 이런 과업을 성취하는데는 대체로 실패하였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최대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려고만 노력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고 크게 애쓰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보자. 오늘날의 보통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창세기 12:1~3의 후반부(복의 근원이 되라)를 더 망각하고 있었으리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 주는 구약성경의 그 많은 중심 성구들을 얼마나 쉽게 간과해 버리고 마는가? (창 12:1~3; 18:18; 22:18; 28:14, 출 19:4~6, 신 28:10, 대하 6:33, 시 67:96; 105, 사 40:5; 42:4; 49:6; 56:3, 6~8, 렘 12:14~17, 슥 2:11, 말 1:11).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 온 백성들이 다른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의무감을 저버리거나 감추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많은 것을 맡은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평범한 교회에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보다도 훨씬 더 적게 언급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것은 그때에도 유효하였고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는 그 명령이 처음 주어지던 그 순간부터(창 12:1~3) 언제나 적절한 명령이었다고 믿는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든 한 민족으로서 이든 우리는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명령은 사도시대 이래로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간과되어져 왔다. 우리가 가진 개신교 전통마저도 250년 이상이나 자신의 일, 곧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축복에만 골몰해 왔다. 그런 뒤에야 위대한 신앙과 불굴의 인내력을 소유한 한 젊은이가 역사의 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 제 1 기 (THE FIRST ERA)

‘서른 미만’의 청년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는 일단의 목사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지상 명령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을 깨우쳤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당신의 도움이나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분석의 결과를 참을성 있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이교도의 회심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해야 할 기독교인의 의무에 관한 탐구(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이다.

*캐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졌다. 즉, 선교적 노력이 성공하자면 선교 단체들을 구성하여 조직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소책자는 그의 친구 몇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 주어 조그마한 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던 '수단'(means)이 되었다. 그 선교회의 조직은 미약하여 그가 인도로 향해 떠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본보기의 영향은 영어 사용권 전세계의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소책자는 개신교 선교 운동의 대헌장이 되었다.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의 첫 선교사는 아니었다. 수년간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린랜드와 미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람들을 파송했다. 그러나 그의 작은 책자는 복음주의 대각성운동과 더불어 선교의 꿈을 심었고, 대서양 양안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 응답은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제 2의 선교회가 런던에서 있었고, 스코틀랜드에 두개, 네덜란드에 하나, 그리고 영국에 또 다른 하나가 조직되었다. 그때에 와서 캐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졌다. 즉 선교적 노력이 성공하자면 선교 단체들을 구성하여 조직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다섯 명의 대학생들이 캐리의 책을 읽고 일깨움을 입었다. 그들은 그 결과 함께 모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후에 '건초더미 기도회'(Haystack Payer Meeting)로 알려진 이 겸허한 기도 모임은 미국에서의 선교 '수단', 곧 미국 해외 선교 위원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of Foreign Missions)를 결성하는 열매를 맺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의 학생 선교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운동은 오늘날까지 선교에 있어서의 다른 학생운동의 전형(example)과 선구(forerunner)가 되었다.

실제로 캐리가 인도로 향하여 배를 타고 떠난 이후 처음 25년 동안에 십여 개의 선교회가 대서양 양안에서 결성되었고, 개신교 선교의 제 1기는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당시의 대부분의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주로 몰두해 있던 일들과 관련시켜 보면 이 제 1기의 선교는 형편없이 작은 규모의 것이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하나의 고정 형태가 되었다.

*제 1기에 있어서 아주 밝은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파송된 사람들이 보인 놀라움 만한 사랑과 희생이며, 선교 전략에 대한 수준 높은 안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캐리의 영향은 보스톤에 있는 몇 여성들로 하여금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런 움직임이 여성으로 하여금 선교적 지식과 선교에의 동기 부여에 주된 후원자들이 되게 하였다. 수년 후에 여성들은 독신 선교사들로 선교 현지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결국 1865년에는 미국의 미혼 여성들이 여성 선교회들을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녀회처럼 독신 여성들만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으며 본부에서도 독신 여성들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제 1기에 있어서 아주 밝은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는 파송된 사람들이 보인 놀라운 만한 사랑과 희생이다. 특별히 아프리카는 공포의 대륙이었다. 1775년 이전의 아프리카 선교는 철저한 실패였다. 카톨릭 교회의 모든 선교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온갖 노력이 남겨 놓은 것이라고는 없었다. 제 1기가 시작될 무렵 그 대륙에는 어떤 류의 선교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1790년 이후 수십 년 간 그 대륙으로 들어간 정말 용감하였던 선교사들은 거의 피할 수 없었던 질병과 죽음에 직면하여 싸웠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그들을 포기하게 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그들의 활동은 자살에로의 행진으로 기록되었으며, 어떤 다른 시기나 다른 운동도 여기에 비길 수는 없다. 제 1기의 처음 60년 동안에 아프리카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 가운데 2년 이상 살아남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이런 헌신적 활동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히 눈물을 흘려 왔다. 오늘을 사는 나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기록에 미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어바나(Urbana) 학생들이 그들 앞서 파송된 선교사들 20명 중 19명이 선교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죽는 일이 수 십년간 계속되어 왔음을 알고도 선교를 위하여 나가리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

제 1기에 있어서 두 번째 눈에 띄는 점은 선교 전략에 대한 수준 높은 안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선교 전략의 개발 운동은 여러 사람의 훌륭한 선교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선교하는 교회의 구조와 관련하여 그들은 선교회 자체의 생활을 그대로 허용하는 선교 구조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는 런던 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담을 알고 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일면 그 선교회가 교회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데 있고, 다른 일면 그 선교회는 거의 비슷한 수의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되어 왔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선교 현장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벤(Henry Venn)의 글로부터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는 그 유명한 클랩햄(Clapham) 복음 주의자들과 관계되어 있었고, 교회 선교회(The Church Missionary Society)의 창립 멤버의 한 사람의 아들이 있다. 몇몇 목은 개념들을 제외하면 그의 가장 잘 알려진 구절들 가운데 하나인 다음의 글은 신기할 만큼 현대적인 것이다:

교회적 결과를 두고 볼 때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피선교지의 교회를 그곳 출신 목사의 지도하에 자급적 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생각할 때 선교 활동의 발전은 주로 그곳 목사를 훈련시켜 적소에 앉히는 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재미있는 표현으로 '선교의 안락사'(Euthanasia of a Mission)라는 것도 현지 목사의 지도하에 잘 훈련된 현지 회중들에 둘러싸인 선교사가 모든 목양적 사역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점진적으로 그곳 목사들에 대한 감독마저 그만두고 나아가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선교사의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 때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선교 사역은 이제 정착된 기독교 공동체로 이행되어 가게 된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와 모든 선교 기구들은 '다음 선교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 선교 학자들은 이미 최근에 두운법을 따라 기술된 선교 활동 단계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1단계: 개척자 단계 - 어떤 주민 집단과의 첫 접촉

2단계: 부형적 단계 - 선교사들이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단계

3단계: 동역자 단계 - 그 민족 지도자들이 선교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단계

4단계: 참여자 단계 - 외지인은 더 이상 대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초청이 있을 때에만 참여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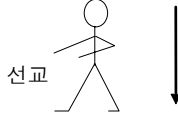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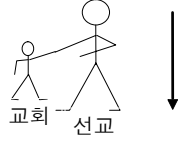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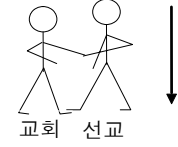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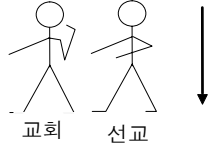
제 1기의 노력은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였으나 결국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발전의 단계들을 볼 수 있었다. 즉 개척 단계에서는 교회가 전혀 없었으나 부형적 단계에서는 어린 교회가 나타나고, 동역 단계와 참여 단계에서는 좀더 복잡하고 성숙한 교회를 볼 수 있다.

미국 개혁 교회 위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n Board)의 호프만(Samuel Hoffman)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해 주었다. “복음 전도자로 사랑을 받았고, 선생으로 호감을 샀던 기독교 선교사는 행정가로서는 스스로 유감스러움을 느낄지 모른다.”

자신의 사역 기간 중 이런 발전의 전 과정이 일어나는 선교사는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흔히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이 발전 단계는 선교사들이 바뀌면서 이루어진다. 또는 초기에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 몇 년 후 그중 대부분이 거의 동시에 성숙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선교부의 경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옳게든 그르게든 이런 일련의 발전 과정은 선교 운동에서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것은 변화와 민족화애의 열망이 거의 모든 행정가들의 사고를 한때 지배하였다. 그리고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번져, 초기 단계에 속한 선교 현장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후기 단계에 속한 선교 현장에 까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1865년경에 와서는 구미 양 대륙에서 공히 선교사는 자기 과업이 마무리되어 임무를 완수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 1기 선교는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안 지역에 그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내륙 지역이 없는 경우, 문자 그대로의 철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제 1기 선교의 후기 단계를 상징하는 것은 하와이 제도로부터 모든 선교사를 철수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따로 고립된 지역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철수는 적절한 자부심과 화려한 환송 가운데 행해졌고, 때로는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는 선교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대를 최대로 충족시키기도 하였다.

<h2 style="margin: 0;">선교와 교회의 관계: 발전의 4단계</h2> <p style="margin: 0; font-size: small;">MISSION-CHURCH RELATIONS: FOUR STAGES OF DEVELOPMENT</p>	
<p><b>1단계: 개척자(PIONEER)</b></p> <p>다른 은사는 물론 지도자로서의 은사가 요구된다. 신자는 한 명도 없음. 선교사는 지도자여야 하고 일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p>	 <p style="margin: 0; font-size: x-small;">선교</p>
<p><b>2단계: 부모(PARENT)</b></p> <p>가르치는 은사가 요구됨. 새로 세워진 교회는 선교부에 대하여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부모'는 '온정주의'를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p>	 <p style="margin: 0; font-size: x-small;">교회 선교</p>
<p><b>3단계: 동역자(PARTNER)</b></p> <p>부모 자식 관계에서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양자 모두 변하기는 어렵지만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p>	 <p style="margin: 0; font-size: x-small;">교회 선교</p>
<p><b>4단계: 참여자(PARTICIPANT)</b></p> <p>완전히 성숙한 교회는 스스로 지도력을 갖는다. 선교부가 남아있는 한 선교부는 그 교회가 마태복음 28:19-20의 원래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선교부는 다른 어느 곳에서 제 1단계 선교를 시작해야 한다.</p>	 <p style="margin: 0; font-size: x-small;">교회 선교</p>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모델은 통해 4개의 단계들이 모두 완성됨으로써 그 문화에서의 한 '기'(era)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South Sea Islands나 하와이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기'가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교사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적절한 신호가 되었다. 그 이후로 전체 섬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돌아가야 할 때이다." 혹은 "현지 교회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지역은 아직 선교사들을 불러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내륙지방에서는 많은 사역, 심지어 개척적인 사역까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국에 있는 후원자들에게 혼란을 안겨 주었다. 선교 사역이 적절했는가, 부적절했는가? 현지 교회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역자들을 보내야 하는가?

캐리의 조약이 출판된 후 거의 100년이 지난 1865년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제 1기(First Era)의 단계들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모든 단계가 종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으며, 미완성 과업을 남겨 놓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예상을 뛰어넘은 제 2기(Second Era)가 도래하였다.

## 제 2기(THE SECOND ERA)

1865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적어도 제 2기 선교의 개막을 알리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짧은 연수밖에 거치지 않았고 캐리처럼 30대 미만이었던 한 젊은이가 주위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내지 선교를 강조하는 전혀 새로운 하나의 선교 기구를 설립한 것이다. 이 제 2기 대담한 청년은 거의 주의를 끌지 못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윌리엄 캐리처럼 통계자료와 도표들과 지도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가 중국 내륙지방 주민에게도 선교의 손이 미쳐야 한다고 제안하였을 때, 그가 얻은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즉 도대체 거기까지 갈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자리로 보내진 그 젊은이들의 핏값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대학 교육은 받은 적이 없고, 교육이라야 실업학교에서 배운 의술과 훨씬 더 형편 없는 선교훈련이 고작이었으며, 선교 현장에서 보인 그의 개인주의적 행동 때문에 얻은 과거의 평판도 좋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사용하는 연약한 자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초기 선교에서 교회 개척 선교 정책을 반대하였는데 이것도 오늘의 교회 개척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커다란 실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할 만큼 그를 높이셨다. 그것은 그의 눈이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미치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가 윌리엄 캐리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성령께서는 많은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 주셨고, 결국 중국내지선교에 주력하였던 6,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봉사 할 수 있었던 것은 테일러가 조직한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의 힘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 조직은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협력적인, 그리고 봉사적인 조직이었다. 사실 다른 선교회가 복음이 미치지 못한 내륙

개척지 선교를 특별히 강조한 테일러의 선교에 힘을 합하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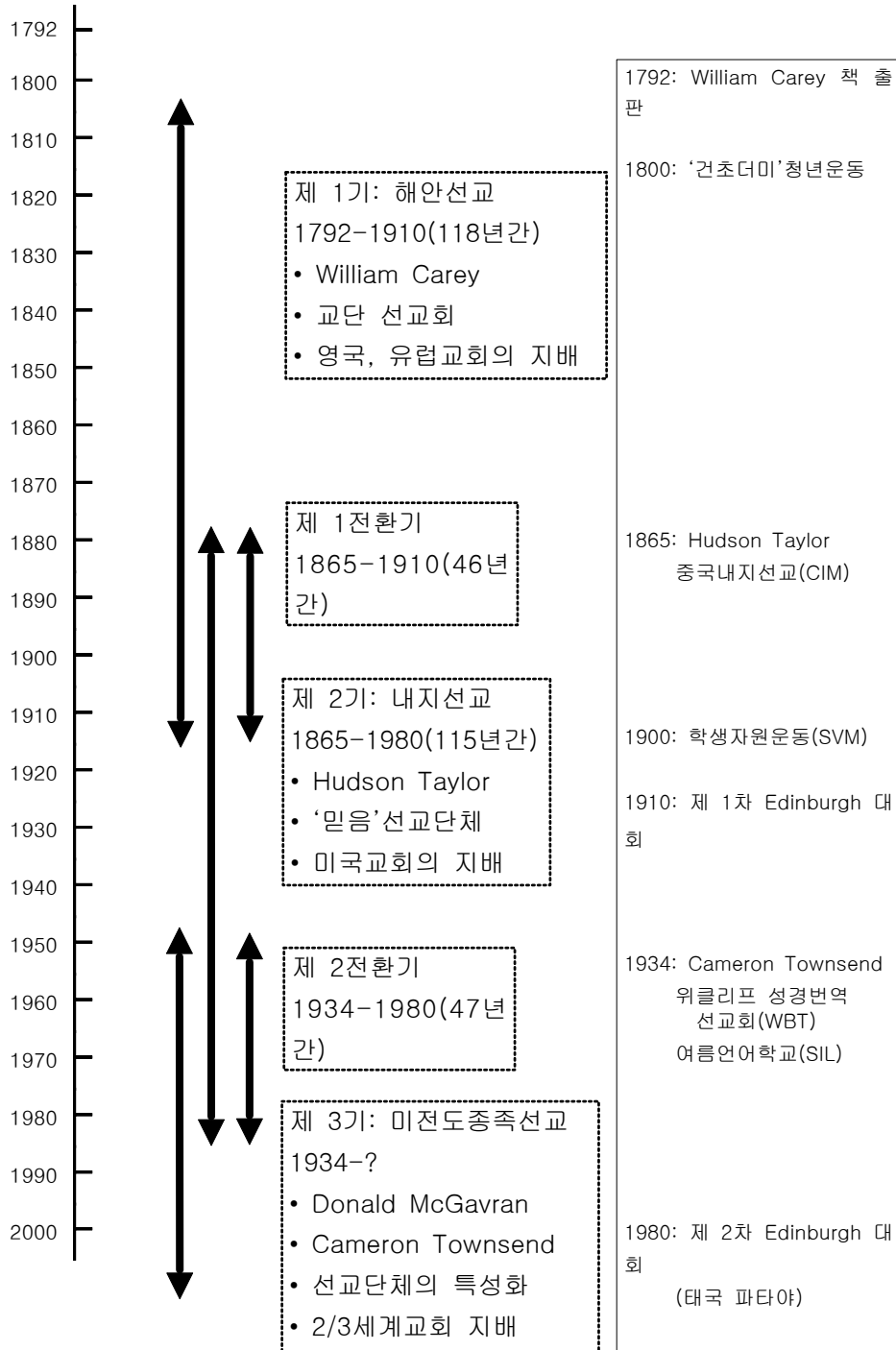
제 2기 선교가 서서히 시작된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선교회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왜 더 많은 선교 기관들이 필요한가? 그러나 테일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모든 선교 기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안 지역이나 태평양상의 도서 지방에만 그 선교를 국한시켰다. 사람들은 묻기를 “해안 지역에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데 왜 내륙으로 들어가려 하는가?”라고 했다.

나는 그런 비교가 오늘날도 옳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의 제 2기는 새로운 비전뿐 아니라 많은 새로운 조직들도 필요로 했음이 분명하다. 테일러는 영국에서 하나의 개척 선교회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와 대륙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선교 기관들을 세우도록 사람들을 일깨웠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그 결과로 40여 개의 새로운 기관들이 창립되었으며, 그 이름들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개척 선교회들이라 불리어 마땅할 것이다. 그때의 대표적 선교회를 보면 중국내지선교회, 수단내지선교회, 아프리카내지선교회, 아프리카중심부선교회,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 선교회, 미개척지선교연맹 등이었다.

제 1기의 초기 단계에서처럼 일이 진척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생운동을 일으키셨다. 이 운동은 이전의 어느 것보다 더 강한 운동이었다. 곧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자원 해외선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이라 불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 조직이었던 것이다. 1880년대와 90년대의 대학생 수는 오늘날에 비해 1/37 밖에 안되었으나 학생자원해외선교운동은 일생을 선교에 바치기로 한 10만명의 지원자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그중 2만명이 실제로 해외에 파송되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는 나머지 8만명은 본국에 남아 선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평신도 선교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기존에 있던 여성 선교회들을 강화하였다.



### 근대선교의 전환기



그러나 제 2기의 참신한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들은 제 1기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교육 수준이 형편없던 현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이관해 왔는지를 항상 바로 파악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 1기에 속한 선교사들의 수는 당시 소수였으며, 많은 수의 대학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는 그 전의 선교사들이 경험으로 얻었던 지혜를 간과해 버렸다. 따라서 제 2기의 초기 단계에서 새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는 대신 흔히 기존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부임하여 제 1기의 선교사들과 현지 지도자들(힘들어서 양성해 놓은)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선교 정책상 커다란 후퇴를 야기한 셈이다.

그러나 1925년에 이르러 역사상 가장 큰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때서야 제 2기 선교사들은 드디어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기본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었고 믿기 어려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그들은 1,000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것은 주로 '내륙 깊숙한' 지역이었고, 1940년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신생 교회들'의 존재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새 사실'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널리 세워진 신생 교회들은 결국 현지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모두가, 남은 미개척 지역들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존 교회들의 일상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서도 간단히 정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정말 필요한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1865년에처럼 다시 한 번 세계 도처에서 선교사들을 귀환시키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두 시기가 중복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865년부터 1910년까지의 45년간은 제 1기, 곧 해안 선교 시대의 성숙한 단계에 적합한 정책과 제 2기, 곧 내지 선교 시대의 개척 단계에 적합한 정책 사이의 변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 협의회에 이어 파괴적인 세계대전들이 잇따라 발발하였고, 세계적으로 식민지 기구들은 붕괴하였었다. 1945년경의 많은 해외 교회들은 식민 강대국들의 철수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부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은 돌아가라"는 구호가 아주 널리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이제 아주 달라졌고, 본국의 성도들도 결국 이를 감지하게 되었다. 개척 단계와 부형적 단계는 더 이상 적합한 단계가 아니었고, 동역적 단계와 참여의 단계가 필요하였다.

1967년에 이르러 미국의 전체 선교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그리고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은 모든 필요한 선교의 전초 교두보들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1967년경에는 북미 출신 선교사들의 90% 이상이 이미 상당 기간 존속해 온 강력한 민족 교회들과 더불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었다.

### 제 3기(THE THIRD ERA)

*타운젠드는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미개척지대가 있음을 보았고,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이 세상에서 소외된 부족민들을 위한 구조의 깃발을 흔들었다.*

이 시기는 학생자원운동(SVM)이 낳은 두 사람의 젊은이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카메론 타운젠드(Cameron Townsend)와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이다. 타운젠드는 선교 현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대학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불사하였다. 그는 '제 2기' 선교사로 과테말라에 가서, 과거에 시작되어 행해지던 일을 계속하였다. 다른 선교 현장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기존하는 민족 교회와 더불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타운젠드는 과테말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스페인어로 쓰인 성경을 나누어주면서 깨달은 것은 스페인어로 전도해서는 결코 모든 과테말라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인디언이 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우리말은 할 줄 모르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이런 새로운 착상을 기반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3세 때였다.

우리 시대에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에 비길 만한 인물은 카메론 타운젠드이다. 캐리와 테일러처럼 타운젠드는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미개척지대가 있음을 보았고,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이 세상에서 소외된 부족민들을 위한 구조의 깃발을 흔들었다. 그는 다른 선교 기관들이 그런 부족민들에게까지 손을 뻗도록 돕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 그러나 결국 캐리나 테일러와 같이 자신의 선교 기관을 발족시키는 데까지 갔다. 새로운 미개척지에 손을 뻗치는 위클리프성경번역회(Wycliffe Bible Translators)가 그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세계에 약 500개의 복음이 미치지 못한 부족 그룹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당시 그는 멕시코에서만 사용되는 부족 언어의 수를 생각하여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그 수를 천개, 다음에는 2천개로 고쳤으며, 지금은 5천개에 육박하고 있다. 그가 생각했던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그의 선교기관의 크기도 커졌다. 오늘날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일꾼도 4천명을 넘어선 것이다.

타운젠드가 과테말라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도날드 맥가브란은 다른 하나의 장벽, 곧 언어의 장벽이 아닌 인도의 놀랄 만한 사회적 장벽의 심각성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타운젠드가 부족들을 '발견'하였다면, 맥가브란은 그가 '동질 집단'이라 부른 좀더 보편적인 범주를 발견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종족 집단이라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집단의 성격에 따라 획기적인 선교 사역을 행함으로 그런 집단 안으로 파고들기만 하면 그들을 향한 전략적인 '하나님의 다리'(Bridge of God)가 가설되는 셈이다. 이런 진리의 당연한 결과는 우리가 무슨 획기적 노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파고들기까지는 정상적인 복음전도나 교회 개척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맥가브란은 새로운 선교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다(타운젠드는 기존 선교회들이 원주민 부

족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였다). 맥가브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술은 교회성장운동과 개척선교운동을 일으켰는데, 전자는 이미 파고 들어간 종족집단 내에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이었고, 후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 집단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들 이전의 캐리나 테일러의 경우와 같이 타운젠드와 맥가브란도 20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별로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러 이들은 광범한 청중을 끌게 되었다. 1934년으로부터 46년이 흐른 1980년에는 1910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이 두 사람이 강조했던 사람들에게 정확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80년의 에딘버러대회: 세계개척선교협의회(Edinburgh-1980: World Consultation on Frontier Mission)는 역사상 가장 큰 선교 대회였는데, 그것은 대표단을 파송한 선교 단체들의 수를 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경이중의 경이는 57개의 제 3세계 선교 기관들이 그 대표를 보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제 3시대 선교가 거둔 뜻밖의 성공이다! 또한 동시에 열렸던 청년 대회인 국제학생개척선교협의회(The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ation on Frontier Missions)는 앞으로 열릴 모든 선교 대회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제 1기와 제 2기의 초기 단계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제 3기도 많은 새로운 선교 기관들을 태동케 하였다. 신종족 선교회와 같은 몇몇 선교회는 그 명칭에서 이런 새로운 강조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 복음음반선교회(Gospel Recordings)와 항공선교동지회(Mission Aviation Fellowship) 같은 다른 기관들의 이름은 원주민 부족들과 여타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나타내고 있다. 미개척지선교연맹과 같은 제 2기 선교 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계속 미개척지를 강조하여 그 인원을 늘림으로써 더 깊은 오지 -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종족 집단에게까지 파고들 수 있게 되었다.

*미전도종족들(Unreached Peoples)은 기존 교회의 문화적 전통과는 너무 다르기에 그 지역 고유의 교회를 개척, 설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좀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 부족들만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다른 많은 집단들, 심지어 부분적으로 기독교화된 지역의 한가운데 있는 일부 집단들까지도 철저히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s)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종적, 또는 사회적 특징에 따라 어떤 기존 교회의 문화적 전통과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그들의 특수 전통 속에서 토착 교회를 개척, 설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교 전략(전도 전략이기보다는)이 필요하게 된다.

제 1기가 해안 지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제 2기가 내륙 깊숙한 지역의 선교로 특징지어진다면, 제 3기는 정의하기는 좀더 어렵겠지만 우리가 “미전도종족들(Unreached Peoples)” 이라고 불러온 비지리적 범주, 곧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진 종족 집단 선교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이 개념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제 3기는 제 2기보다 그 출발이 훨씬 서서히 이루어졌다. 카메룬 타운젠드와 도날드 맥가브란은 이미 40여 년 전에 ‘무시되어 온 사람들’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그들에게 주된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제 1기와 제 2기의 선교

기술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망각해 왔으며, 따라서 전혀 복음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지를 배우려면 역사의 바퀴를 다시 창안해야 할 형편이다.

현재 우리는 “미전도종족들”(Unreached Peoples)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종족 집단이 적어도 16,750개나 된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집단마다 새로운 선교의 교두보를 따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너무 많은가?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거나 한가? “2000년까지는 모든 집단마다 한 교회 갖기”라는 현재의 표현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 우리는 해낼 수 있는가?

이 과업은 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놀랄 만한 이유들이 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미국의 과업도, 서구의 과업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 과업은 세계 모든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과업이다. 1980년 통계로 비서방 세계 안에 이미 400여 개의 선교 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13,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으며, 그 수는 증가 일로에 있다.

*이 과업은 미국이나 서구의 과업이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과업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에 선교의 교두보가 일단 확보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정상적인 복음 전도 과정이 선교 정책을 대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파고 들어가는’(Breaking In) 선교의 과업은 끝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까지는 모든 ‘미전도종족들’(Unreached People)의 집단마다 하나의 교두보를 확립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이다.

나아가서 지금은 ‘폐쇄적인 나라들’(closed countries)도 점차 적은 문제로 남을 것이다. 현대 세계가 점차 상호의존적으로 되어 가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자 그대로 외국인을 전혀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는 없다. 사우디 아라비아처럼 ‘완전히 폐쇄적’(completely closed)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나라들도 실제로는 수천 명의 외국 기술자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도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세속적 서구인보다는 건전한 기독교인을 선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1980년에 있었던 중요한 모임들, 곧 태국에서 모인 세계복음화대회(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COW E), 에딘버러에서 열린 개척 선교를 위한 세계선교대회와 개척선교를 위한 국제학생연합대회 등은 제 3기 선교를 뜨겁게 새로 출발시키는 발화점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수단내지선교회와 같은 주요한 제 2기 선교 시대의 선교회들도 새로운 현장으로 그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수단내지선교회의 제럴드 스웁크(Gerald Swank)는 그 선교회가 다시 착수하려는 새로운 전초 기지를 10여 곳에 구축하고 있다. 루터 교회의 미주리주 대회는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90년까지는 선교 역량을 3배로 늘여 10개 처의 선교 현장을 개척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예를 10여 개는 더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 3기 선교 시대의 과업은 다른 많은 이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연결망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어서 언제라도 모든 교회의 선교의 초점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선교의 최종 시기일 수 있고, 또 최종 시기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치 못한다면 우리 세대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변명의 여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